

2023년 3직급 일반승진 직무역량평가(1) 문제지

2022. 11. 19(토)

문 제

1. 보고서 작성배경 및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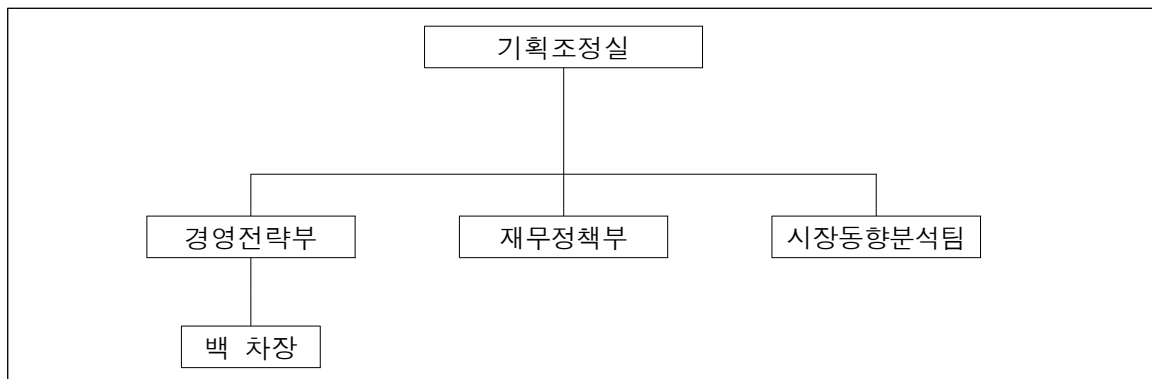
- ☐ 한국의 'A기업'(가상의 회사)은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판매 등 국내외 전력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전력회사이다. A기업은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에너지위기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 ☐ 귀하는 A기업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의 '백 차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주어진 참고/고려사항과 제시자료를 활용하여 사장에게 보고할 재무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1장으로 작성하시오.
- (지시사항) 최근 에너지시장과 A기업 재무현황 등 '대내외현황'을 분석하고, '추진전략'과 '향후계획'을 보고할 것

2. 보고서 작성 및 평가기준

- ☐ 제시자료들을 활용하여 최근 에너지시장 동향과 A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사 차원의 추진전략, 향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작성 및 평가 주요기준 (총 3개 항목)
 - 논리·정확성 : 보고서 전체의 논리가 일관되고 구체적 근거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 명확·간결성 : 불필요한 정보 없이 핵심내용 위주로 명확·간결하게 작성할 것
 - 완결성 : 보고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완결된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

3. 참고 및 고려사항

- ☐ A기업 기획조정실 조직도



- ☐ 기획조정실은 A기업의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전사 재무분석 및 리스크 대응 전략, 글로벌 에너지시장 및 금융시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며,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실의 업무는 물론이고 회사업무 전반에 대해 조정·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
- ☐ 기획조정실 부서별 업무분장
 - 경영전략부 : 전사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조직별 전략의 전사 차원 조정
 - 재무정책부 : 전사 재무현황 분석, 리스크 대응전략 등 재무정책 수립
 - 시장동향분석팀 : 석유·석탄·LNG 등 발전연료 시장동향 분석
- ☐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은 귀하는 소속부서의 업무분장, 본인의 직위와 상관 없이 기획조정실 및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 시 이들 업무에 대한 조정·결정 등의 권한이 있다고 가정함
- ☐ 답안 작성의 모든 판단기준과 논리는 작성자가 개인별로 사전에 가지고 있던 관련 지식이 아닌, **본 제시문과 자료에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유추·활용해야 함**
- ☐ 본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수치 등은 가상의 설정임
- ☐ 보고서 작성시점 : 2022년 11월 18일(금)

4. 배점 및 작성 유의사항


- ☐ 배 점 (총 100점 만점, **최종 환산 배점 25점**)

항 목	논리·정확성	명확·간결성	완결성	합 계
배 점	40점	30점	30점	100점

- ☐ 작성 유의사항 (아래의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답안은 감점될 수 있음)

- 방대한 정보의 일방적 나열이 아닌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 작성
-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내용 기재 시 감점 (정제된 어휘 사용)
- 답안지 양식 변경불가 (답안지를 변형할 경우 감점될 수 있음)
 - 총 26줄 이내의 개조식으로 작성
 - ※ 제목 줄은 줄 산정에서 제외, 단락 간 구분을 위해 비우는 줄은 줄 산정에 포함
 - 글자체 및 글자크기

구 분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수 제한
제 목	HY헤드라인M	21포인트	최대 21자
본 문	신명조	13포인트	최대 35자(순수 글자수)

- ※ (글자색 / 볼드체) 검정색만 사용, 볼드체 사용불가(소제목은 가능)
- 장평, 자간 : 조정 불가 (장평 100%, 자간 0%로 작성)
- ‘표’ 사용, 두 줄 입력, ‘Enter’버튼 사용 : 불가
- ※ 줄 이동(줄 바꿈) 시 반드시  혹은 마우스 활용하여 줄 이동
- 보고서는 ‘1,2,3...’→‘□’→‘○’→‘-’ 순서로 구성, 참고기호 [‘※’, ‘*’, () 등] 활용 가능

제시자료 1 : 기획조정실장 발송 이메일 (2022. 11. 15)

보낸사람	기획조정실장 <cho@a-utility.co.kr>
받는사람	경영전략부장, 경영전략부 백 차장
보낸일시	2022. 11. 15 16:39
제 목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재무위기 극복방안 보고서 작성 요청
<p>경영전략부장, 백 차장,</p> <p>이미 다들 알고 있듯이,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에너지위기로 인해를 해 우리회사의 재무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p> <p>이와 관련하여 어제 사장님 주관으로 경영진 비상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약 120년에 달하는 우리회사 역사에서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2022년 우리는 단 한번도 겪어 본적이 없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경영진의 공통된 판단입니다.</p> <p>그래서, 어제 사장님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에너지위기 관련 대내외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추진 전략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수립된 내용은 11월 29일 CEO 사내대담에서 모든 임직원과 공유하여 전사적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p> <p>작성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 실무부서에서는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고, 우리 실에서는 12월 20일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종합한 보고서를 사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막중함을 인지하고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p> <p>최근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p> <p>조○○ 드림</p>	

제시자료 2 :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2022. 11. 16)

경영전략부장



백 차장님, 실장님께서 지시한 보고서는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재무위기 해결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보고서이니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오전 9:27

백 차장

당연하죠, 부장님!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오전 9:28



경영전략부장



대내외현황은 최근 에너지시장, 물가동향 및 회사의 재무 현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보도자료, 정부 발표자료 및 사내자료를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추진전략은 전기요금, 도매시장, 재무개선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제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무개선의 경우에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30

백 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오전 9:31



재무정책부장



백 차장님, 이번 실장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우리회사 재무상황 분석 보고서를 찾았다면서요? 최근 전기요금 조정 내용까지 반영한 보고서를 백 차장님 이메일로 보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0:38

백 차장

부장님, 매번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1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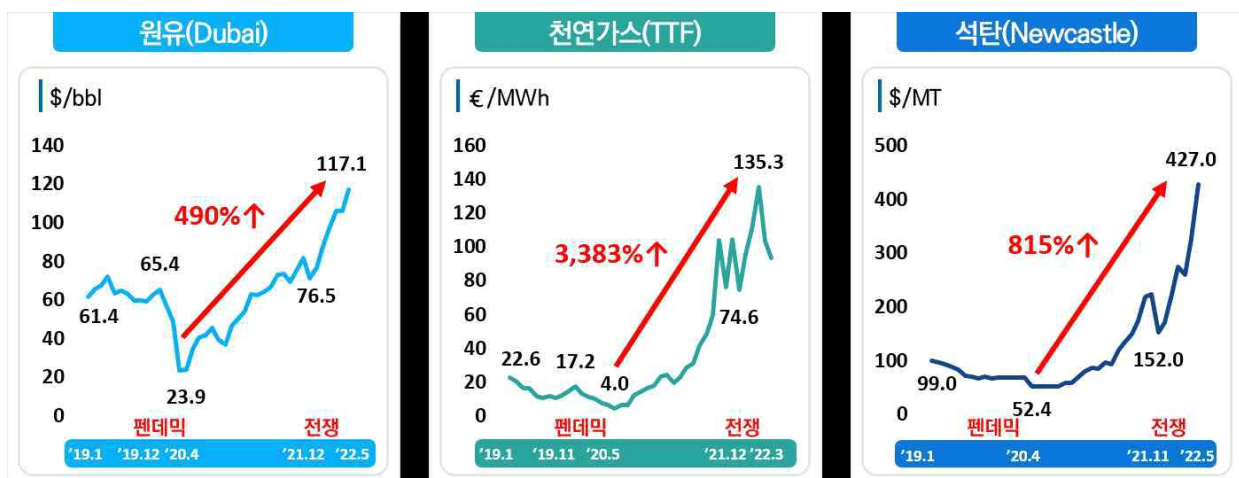


제시자료 3 : 2022년 글로벌 에너지시장 동향 (A기업 시장동향분석팀, 2022. 10. 10)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올 해 '위드 코로나'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수요회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글로벌 에너지시장은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단기간에 공급능력 확대가 어려운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음.

- 중략 -

최근 2년 동안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닥을 찍은 이후 반등하여 저점 대비 490%, 3,383% 및 815% 수준으로 급등하였음.



- 중략 -

여기에 올 초 발발한 러시아와 EU 간 에너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가스 공급이 급감하였으며, 유럽 내 가스 공급의 40%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가스의 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산 가스 대체 방안으로는 중동 및 호주로부터 가스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와 가스 구매 경쟁이 발생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도 동반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임.

제시자료 4 : REPower EU 전략 (European Commission, 2022. 6)

□ REPower EU 배경

- 2022년 2월 유럽과 러시아간 에너지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러시아산 화석연료 퇴출 움직임 대두
- European Commission은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REPower EU” 계획을 발표

□ REPower EU 실행전략

①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 EU 회원국간 LNG 인프라 공유 및 가스 공동구매 추진
- 미국 등으로부터 LNG 수입 확대 등

② 에너지 소비 절감

- 가정용 난방 및 운송 부분 소비절감으로 에너지수요 5% 절감
- 2030년 에너지효율 목표 13% 설정 (냉난방 온도 조정, 신축건물 규제 등)

③ 친환경 에너지전환 가속화

- 2030년 전체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45% 목표
- 2030년까지 그린수소 생산 및 수입을 2천만톤으로 확대 등

□ REPower EU 기대효과

- 2022년 말까지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2/3까지 줄이고,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100% 대체 목표

< REPower EU 계획의 화석연료 수요 감축 목표 >



[EE칼럼] 도매전력시장 제도 개편 추진의 필요성

김○○ 에너지정책센터 센터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도 장기화되고 있고 국제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력판매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A기업의 2022년 상반기 영업적자는 7.2조원을 기록하고 올해 15.1조원의 최대규모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A기업의 영업손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3분기까지의 LNG가격은 톤당 132만5600원으로, 1년 전(61만6400원)보다 두 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유연탄 역시 톤당 123.5달러에서 354.9달러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연료가격과 연동된 전력도매단가(SMP)는 킬로와트시(kWh)당 83.3원에서 177.4원으로 113% 치솟았다.

치솟은 SMP는 A기업이 자회사로 보유한 발전회사와 다른 발전회사들로부터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 증대로 이어졌다. A기업은 전력을 거래할 때 SMP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산한다. 전력구입비가 두 배 이상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발전사들은 올해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A기업 적자의 일정 부분이 민간 발전사 수익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전기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의 도매시장 조치 사례는 우리나라 도매시장 개편에 참고할 만하다. 다만 국내 도매시장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미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별 가격입찰제도는 국내 적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개편을 위해 도매전력 구매 당사자인 A기업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시자료 6 : 2022년 재무전망 및 관련 이슈 (A기업 재무정책부, 2022. 10. 15)

Q1. 영업실적 및 전망

□ 2022년 영업적자는 15.1조원 규모로 창사 이래 최대수준으로 전망

- 7월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였으나,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 및 LNG 가격 상승으로 8월 도매전력시장 가격이 kWh당 200원 내외를 등락하고 있어 실적 정상화는 단기간 내에 쉽지 않을 전망

□ 2022년 상반기 영업적자는 7.2조원으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 기록

- 높은 수준의 국제에너지가격 영향으로 영업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어 재무여건 악화

* ('22년 상반기) 전력도매단가 : 180.5원/kWh, 판매단가 : 110.4원/kWh

<A기업 연결기준 재무제표>

(단위 : 억원)

구분	2020	2021	2021 상반기	2022 상반기	2022 (전망)
매출액	292,847	302,874	142,971	159,961	344,763
영업이익	20,432	29,301	13,966	-71,517	-150,624
당기순이익	10,463	26,146	11,777	-53,809	-114,808
총차입금	371,729	394,700	372,039	518,637	667,397
영업이익률	7.0%	9.7%	0.7%	-44.7%	-43.69%
부채비율	186.8%	198.2%	188.3%	299.1%	410.35%

Q2. 자금조달 관련 이슈

□ 영업실적 악화로 회사채 발행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

- 현행 회사채 발행한도는 내부 사규상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되어 있어 2022년 대규모 적자로 회사채 발행한도가 감소할 전망

□ 이에 2023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회사채 발행한도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며,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수적

<A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 및 잔액 추정>

(단위 :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전망)
발행한도	44.7	46.8	51.5	28.5
발행잔액	27.6	28.3	44.5	51.3

제시자료 7 : A기업 경영회의 자료 발췌 (2022. 10. 26)

1 고강도 자체 재무개선 추진 전략

기획조정실

□ 재무위기 극복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고강도 재무개선 추진

○ (추진배경) 기존 재무개선의 한계에 따른 고강도 재무개선체제 필요

재무개선(기존)	재무개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비 집행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 설비효율개선을 통한 투자비 절감 ▶ 투자조정 및 비용절감(10%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심 자산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매각 - 해외사업 구조조정 ▶ 투자조정 및 강도 높은 비용절감(30% 수준)

○ 추진방향

- (비핵심자산 매각) 유휴부동산 매각 및 해외 석탄사업 구조조정
- (투자조정 및 고강도 비용절감) 안정적 전력공급 및 안전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0% 수준 절감 추진





2 탄소중립 원천기술 개발 추진 전략

기술혁신부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추진방안 마련

○ (추진배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사업화 성과 미흡

※ 기술역량 진단 컨설팅 결과 ('21.11)

4대 분야	14개 기술	역량	A사 기술수준 평가결과
신발전	①수소암모니아 ②바이오매스/폐기물 ③연료전지 ④고효율 청정발전		·수소가스터빈 혼소율 15%, 연료전지 발전용시스템 설계·실증 단계로 무탄소발전 기술력 중간 수준
신재생에너지	⑤해상풍력, ⑥태양광 ⑦대용량 장주기 ESS		·원전/LNG/화력비중이 높음 ·장주기ESS사업 중단으로 기술력 수준 낮음
기후환경	⑧CCUS 실증/상용화 ⑨수소생산 및 저장 ⑩미세먼지 저감		·CCUS 기술 파일럿실증단계 등 기술력 중간 수준
스마트운영	⑪디지털변환(IDPP) ⑫안전/보안 ⑬전주기설비 통합운영 ⑭가스복합발전		·디지털변환 전담부서 운영 및 스마트운영 역량 수준 높음

○ 추진방안

- 탄소중립 발전기술 로드맵 수립 및 협력 대상 기술 개발 추진 필요
- 조속한 장주기ESS 사업 재개 추진



물가통계

2022년 9월 28일 공보 2022-10-21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9월 29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8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효과 분석

- ☐ (환율) 원화 환율 10% 변동 시 소비자물가는 1.8%, 생산자물가는 3.0%의 변동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 (임금) 전산업에 걸쳐 임금 10% 변동 시 소비자물가는 3.2%, 생산자물가는 2.9%의 변동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 (수입상품가격) 수입상품의 개별 가격 10% 변동 시 국내물가 파급효과는 원유의 물가파급효과가 소비자물가 0.42%, 생산자물가 0.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문의처 :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팀장 김○○

차장 이□□

Tel : 02-759-0000 Fax : 02-759-0000

E-mail : swlee@bok.or.kr

공보실 : Tel (02) 759-0000

“우리 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최근 에너지위기에 따른 전력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적극적인 도매시장 조치를 시행 중

- European Commission 의장인 폰더 라이엔은 지난달 24일 프랑스 소재 유럽 의회에서 최근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를 제안
 - 재생e, 원자력 등 저원가 발전기에 대해 180유로/MWh 상한제 도입
 - 석유, 가스, 석탄 및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 33%의 황세세 부과
 - EU 차원의 강력한 전력소비 절감 (전력소비량 10%, 피크 5% 감축 등)

- 중략 -

-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전력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도매시장 조치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
 - (미국) 경쟁을 통한 도매가격 인하를 위해 지역별 가격입찰제 도입('22.12)


구 분	내 용
① 기준연료비	▪ 발전사는 일정범위에서 입찰가 제출
② 매입	▪ 판매사는 수요에 기반하여 매입 결정
③ 차등적용	▪ 전력 구매가는 발전사별/지역별로 차등 적용

- (유럽) 발전사 초과수익 방지를 위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중이며, 발전원별 시장분리 및 신규 계약방식 도입으로 가격결정방식 다원화
 - 스페인 : '22년 12월부터 5개월간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 프랑스 : '23년부터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계획 발표('22.09)
 - 영 국 : 가스발전의 도매시장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25년부터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 대해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
 - 독 일 : 가스발전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6년 도입을 목표로 전력시장 개편 작업을 진행 중

- 국내 도매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사점

물가인상 우려로 인해 소매요금 인상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회사의 적자 완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편추진 필요

제시자료 10 :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2. 10. 5)

 통계청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0. 5.(수) 08:00	배포 일시	2022. 10. 5.(수) 08:00		
담당 부서	경제동향통계심의관 물가동향과	책임자	과 장	이○○ (042-000-0000)	
		담당자	사무관	유□□ (042-000-0000)	

1. 주요부문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6% 상승

- 전년동월대비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5.6% 상승하였으나 7월 이후 2개월 연속 둔화되는 양상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식료품및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5% 상승

-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8.6%, 식품이외는 5.1% 각각 상승

< 주요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

(%)

구분	'21.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 지수	2.4	3.2	3.8	3.7	3.6	3.7	4.1	4.8	5.4	6.0	6.3	5.7	5.6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2.0	2.8	2.4	2.7	3.0	3.2	3.3	3.6	4.1	4.4	4.5	4.4	4.5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1.4	2.3	1.9	2.2	2.6	2.9	2.9	3.1	3.4	3.9	3.9	4.0	4.1
생활물가지수	3.1	4.6	5.2	4.6	4.1	4.1	5.0	5.7	6.7	7.4	7.9	6.8	6.5

2. 향후 전망

□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지표가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5%대 고물가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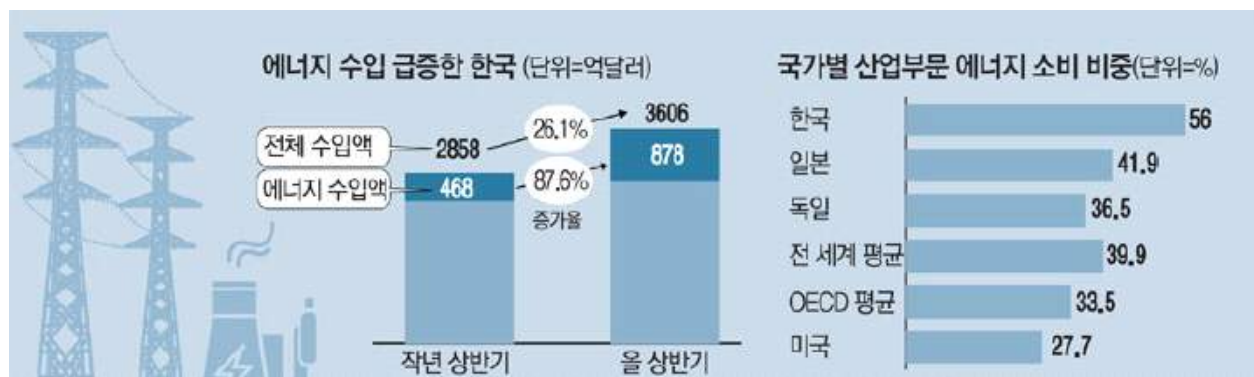
- 지난달 발표된 10월 기대인플레이션은 9월보다 0.1%p 오른 4.3% 기록
-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9월 생산자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한 달만에 상승세로 전환
-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9월 수입물가지수도 154.38로 8월보다 3.3% 상승하였으며,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단독]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수적” 연구결과 나와

A에너지경제연구소,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사용량 10% 덜쓰면 무역적자 절반 줄어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물가상승 압력 완화
에너지 소비절감 및 물가안정 효과 등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송○○ 기자 입력: 2022.09.28. 17:47:03 수정: 2022.09.28. 19:4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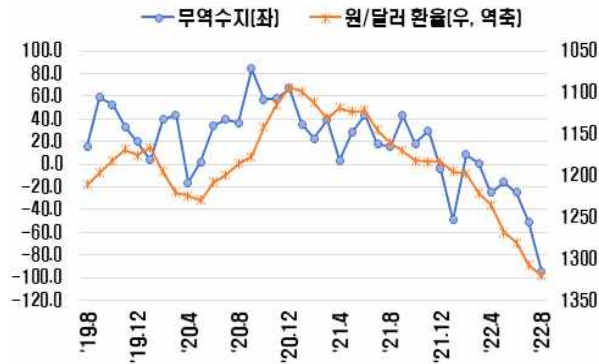
이번 주에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력소비를 10%만 줄여도 에너지 수입액이 연간 15조원 감소한다는 국내 A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 수입액이 이 정도 감소할 경우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적자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28일 A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이 10%(54.4TWh) 줄어들면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수입액이 15조원(810만톤) 감소한다. 이는 올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의 7%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 기간 무역수지 적자도 59% 줄어든다.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될 경우 원화가치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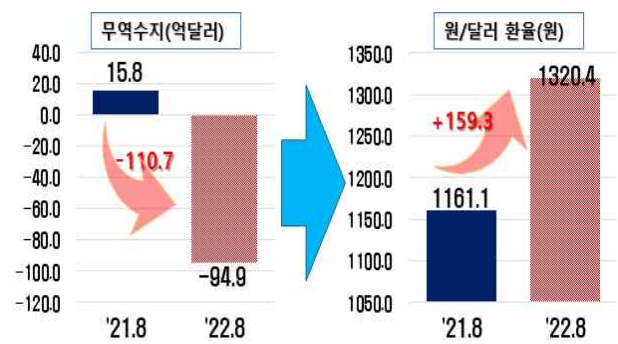
실제로 최근 3년('19.8 ~ '22.8월)간 무역수지와 환율간 추이를 살펴보면, 무역수지가 증가할수록 원화는 절상되고, 무역수지가 감소할수록 원화는 절하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8월 무역수지는 15.8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 8월 △94.9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었다. 동일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은 작년 8월 1161.1원에서 올해 8월 1320.4원으로 159.3원 급등했다.

<최근 3년 무역수지·환율 흐름>

<무역수지·환율 증감(전년동월비)>



※ 자료 : 한국은행, 관세청



※ 자료 : 한국은행, 관세청

A 연구소는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기요금을 30% 인상할 경우 전력사용량이 10%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탓에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비중이 56%에 달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은 33.5%이며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41.9%, 36.5%이다.

A 연구소는 앞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 및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감 및 물가상승 압력 완화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내외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은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 즉,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화하였을 때 수요량은 몇 % 변화하는가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이다.

합리적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주요내용

2022. 10. 28(금), 요금전략부

1. 일시/장소 : '22. 10. 27(목) 16:00 / OO센터 대회의실
2. 토론주제 :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3. 참 석 자 : ○○대학교 경제학과 정○○ 교수
□□대학교 정책학과 나□□ 교수
기획재정부 ◆◆◆◆과 송◇◇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과 구△△과장

4. 주요내용

- 중략 -

□ (정○○ 교수)

- 글로벌 연료가격이 급등하여 A기업 재정여건이 악화되었고,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재무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기요금 정상화임.

□ (송◇◇ 과장)

-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나,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의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분산하여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